

2019년 '이야기극장 특특' 인성극장 C작품세트

[19. 02. 28 기준]

	장르 / 제목	작품 주제 / 내용
C1	 <p>[노력] 꿈꾸는 베짚이</p>	<p>[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주인공을 통해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p> <p>- 우리의 베짚이는 가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는 꿈꾸는 베짚이다. 짚이는 못된 구리 아저씨의 거짓말에도 꿩꿩이 맞서며, 깨미 아저씨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겨울 내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한다. 따뜻한 봄이 오고 위대한 가수 선발대회 결승전에서 만난 짚이와 구리 아저씨! 최종 우승자가 짚이가 되면서 꿈을 이룬다.</p>
C2	 <p>[환경보호] 초록마을 수비대</p>	<p>[살기 좋은 지구환경과 분리수거의 습관을 길러준다.]</p> <p>- 초록마을에 웅달샘은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희망이다. 어느 날 공장이 들어서고 깨끗한 웅달샘에 나부자는 쓰레기와 독극물을 버린다. 오염이 된 웅달샘을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분리수거를 시작하고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게 된다.</p>
C3	 <p>[지혜] 곳감아, 나 살려</p>	<p>[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과 문제해결 능력을 알려준다.]</p> <p>- 어느 날 토끼가 낮잠을 자다 깬데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눈치 채고 꼬를 내어 호랑이에게 구운 돌을 떡이라고 먹여 위기를 모면한다. 호랑이는 자신이 속을 걸 알고 토끼를 잡아 혼내주기 위해 마을로 내려간다. 그러다 배가 고파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곳감이라는 말에 울음을 그치는 것을 듣고 곳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마침 소를 훔치러 왔던 도둑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호랑이는 도둑을 곳감으로 알고 깜짝 놀란다.</p>
C4	 <p>[장애인식] 더지야, 안녕?</p>	<p>[부족한 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음을 이해하며 어떤 모습이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p> <p>- 쥬쥬 마을에 사는 아기 두더지 더지와 꿀꿀이는 사이좋은 친구이다. 하지만 땅속에 사는 더지는 밖에서는 눈이 좋지 않아 먹보대장 먹지는 늘 더지를 놀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 먹지를 잡아간다. 땅속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더지의 도움으로 먹지를 늑대에게서 구하고, 늑대도 멋지게 혼내주게 된다.</p>
C5	 <p>[우정] 악어새 붕붕이</p>	<p>[악어와 악어새인 붕붕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함을 알려준다.]</p> <p>- 여우가 악어새인 붕붕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꼬를 낸다. 그때 악어가 나타나 작은 새인 붕붕이를 구해주고 여우도 그냥 보내준다. 그러나 여우는 물 밖에서 악어를 놀리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러던 중 악어를 잡으러 온 사냥꾼이 나타난다. 붕붕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악어 대신 여우를 사냥감으로 추천하고 악어의 목숨을 구해준다. 사냥꾼은 붕붕이 덕분에 여우 사냥에 성공한다. 악어와 악어새 붕붕이는 서로를 믿고 도우며 친구가 되기로 한다.</p>
C6	 <p>[편견] 앗! 그게 정말이야</p>	<p>[여우의 꼬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해하며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여준다.]</p> <p>- 여우가 사는 숲속마을에 어느 날 랑이(호랑이)와 자야(사자가) 이사를 오게 된다. 숲속에 왕노릇을 하던 여우는 랑이랑 자야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숲속에서 쫓아낼 꼬를 생각해낸다. 랑이와 자야는 서로 앞집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속여 다시 이사를 보낼 생각을 한다. 처음에는 창문으로 비쳐지는 그림자와 소리로 인해 서로를 오해한다. 그러다 여우의 꼬에 속은 것을 안 랑이와 자야는 서로 친구였음을 알고 여우를 혼내준다.</p>